

미카엘 벨커의 창조윤리*

홍순원 (협성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창조의 케노시스
- III. 관계적 사랑과 비움의 사랑
- IV. 창조의 현재적 의미
- V. 창조의 관계적 의미
- VI. 창조와 자연계시
- VII. 창조주의 주권위임과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 V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3>

* 본 연구는 협성대학교 2021년 교내연구과제 논문임.

• ABSTRACT •

Michael Welker's ethics of creation

Prof. Hong Soon Won(Hyupsung Univ.)

The work of God as Creator is not a bygone event trapped in the past, but the eternal presence of God which continues in the present and to the future. The work of the Creator is not limited to the generation of creatures, but encompasses maintaining his relationships with creatures. The God who created heaven cannot be limited to the existence in heaven. God creates the diverse realms of creation into the productive relationship of interdependence. The realm of creation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plants, and between humans and animals.

As the order of creation, heaven represents the invisible realm and earth the visible realm, providing a space to grow and prosper with humans responsible for preserving the created order. The important point in creation is not natural revelation, but the activity of God that happens and is experienced beyond the natural recognition of God. A human being created in God's image must take care of and protect the community of creation to maintain the order of symbiosis. Man exists in a community of solidarity with other creatures, but he is distinguished from the creatures because he is a being who possesses the image of God. In this sense, the human being is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care for and protect the creature community.

Key words: Creation, Presence, Community, Creature

I. 들어가는 말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통한 전 지구적 위기는 인간의 의식과 사회구조의 근원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회의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고 있다. 사회구조는 환경위기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탄소배출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 영성으로부터 사회적, 생태학적 영성을 향한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미카엘 벨커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생태학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창조신학을 재구성하고 통합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계몽주의부터 20세기까지를 지배해온 인간중심주의는 생태학적 위기가 단지 인간의 문화적 영역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와 인간존재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내부로부터 붕괴되었다¹⁾.

벨커는 자신의 창조이해를 통하여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생명 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 의식전환을 추구한다. 그는 위르겐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창조신학을 발전시키지만 창조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서술한 몰트만과 달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벨커는 케노시스 개념을 창조에 적용하여 창조와 구원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지평을 인간에서 창조질서 전체로 확장시킨다. 그 결과 창조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으로 제한되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으로 규정된다.

1) Michael Welker, *Schöpfung und Wirklichkeit*, 김재진역, 『창조와 현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141.

본 연구에서는 벨커의 케노시스 창조이론을 통하여 창조와 창조질서의 본질적이며, 새로운 생태학적 의미를 도출하고 교회와 신학의 의식전환과 시대적 방향제시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모색한다.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벨커가 ‘케노시스’ 개념을 계약신학의 빛에서 해석하며 자신의 창조 이해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창조의 지속적, 현재적 의미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성을 통하여 인간의 창조질서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결론지어지는가를 서술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주의적 채움의 원리에 집착하여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사회현실에 대하여 비움의 원리를 통한 의식 개혁과 사회개혁의 대안적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다.

II. 창조의 케노시스

벨커에게 있어서 케노시스는 삼위일체와 십자가의 원리일 뿐 아니라 창조 안에 나타나는 비움과 충만의 과정이며 끊임없는 자기화의 과정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제한과 우주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창조가 신적 수축 작용일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는 이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가기 전에 세상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양보하기 위해 자기를 자기 자신 속으로 거두어들이는 몰트만의 ‘침춤’ 개념을 인용한다²⁾. 하나님은 창조의 현존을 위해 영역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전체를 거두어들인다. 그 결과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공간 속에서 생성되며, 이러한 비움의 역사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어진다. 창조와 창조질서의 보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한 신적 사역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와 유지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전하며, 그의 사역들 자체 속에서 현존한다³⁾.

2) 위의 책, 143.

3) 최광선, “생태영성 탐구 -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디비나는 가능한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은혜의 첫 번째 행동이다. 하나님은 자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자신 안으로 물러선다. 그것은 창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편재성(omnipresence)을 제한하며, 피조물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신의 영원성을 제한하는 것이다⁴⁾. 하나님의 선행적 자기제한은 창조행위에서 시작하여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겸비와 성령의 구속과 새 창조를 위한 임재에 나타나는 자기 제한으로 인도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보전한다.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계 안에 임재한다. 창조는 창조 이전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 즉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심이다. 창조의 케노시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자기를 제한하신 창조, 계약, 성육신 등의 모든 자기 겸비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창조활동은 자율적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신적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던 사건이며, 성자가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인간 역사와 신적 역사 사이에 놓여 있던 구분과 경계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극복되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 없어질 운명을 지녔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역사 속에서 내려졌다⁵⁾.

창조란 하나님의 자기 비움 행위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면서까지 세계 창조를 기뻐하신 사랑의 존재였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 자신의 속성인 전능, 전지, 편재 등을 일부 희생시키면서까지 피조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피조물들이 자

「신학과 실천」 138(2014), 471.

4) 신옥수, 『몰트만 신학 새롭게 읽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37.

5) Ansgar Kreutzer, *Kenopraxis : Eine handlungstheoretische Erschliessung der Kenosis-Christologie* (Freiburg: Herder Verlag, 2011), 22.

유의지를 갖고 신의 계속적 창조에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벨커는 신학 영역을 넘어서 철학자,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세상과 사회와 자연현상 안에 내재된 사랑에 기초한 이타적 비움 행위의 흔적들을 추적하였으며, 이런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비움이 결국은 창조 세계 전반에 프로그래밍된 원리라고 결론을 도출한다.⁶⁾

벨커는 창조의 사랑 안에 담긴 비움의 속성을 통하여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실천적 비움의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 동료 인간, 그리고 심지어 동료 피조물과 맺는 관계, 즉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그런 관계성을 개척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소위 '사랑에 관한 이중 계명'은 서로 다른 두 기본 관계의 결합이 아니라, 확고하게 연결된 하나의 계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계명은 성서가 전반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해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벨커는 창조의 케노시스를 사랑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계시된 사건으로 해석하며, 개인 및 가족관계의 상황에서 경험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⁷⁾ 케노시스 안에 계시된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성의 한계 안에서 사회적·문화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 사랑의 실천원리이다.

비움의 윤리는 불가피하게 역설의 윤리이다. 왜냐하면 비움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희생과 자기 포기라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단지 성육신뿐 아니라 의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움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으로서 마땅히 소유할 순전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고통과 고난

6) Welker, 『창조와 현실』, 167.

7) 위의 책, 205.

을 많이 경험하겠다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한 통제를 포기하며,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피조물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용인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완전한 지식을 포기하며, 미래에 관한 많은 지식이 피조물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⁸⁾

III. 관계적 사랑과 비움의 사랑

비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개별성과 깊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비움의 사랑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관계를 거부하는 피조물과 만나려는 것이다. 벨커에게 있어서,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관심, 타자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는 관심, 타자의 삶을 펼치도록 인도하려는 열정, 이 모두가 비움의 사랑이 가진 특징이다⁹⁾. 하나님의 자기 비움 안에서 창조의 근거가 사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비움의 사랑은 계약사상에 나타나는 관계성을 추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완성한다. 벨커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울신학을 통하여 이러한 공동체성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창조질서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하는 것은 창조의 케노시스가 인간과 피조물의 연대성을 이루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신적 능력을 부여하며,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8) 위의 책, 211.

9) Michael Welker,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낭만적 사랑, 언약적 사랑, 비움의 사랑", 박동식역, John Polkinghorne ed.,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케노시스 창조이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31.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 창조에 계시되는 비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을 드러냈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피조물에게 주어졌으며, 인간을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현존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육신을 경험하게 한다.¹⁰⁾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 창조한다면 창조질서 안에서 그의 임재방식도 사랑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창조이고 사랑 안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이다. 그 사랑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한다.

에로스는 자기 확인이며 자기실현을 위한 사랑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준다. 반면에 아가페는 전적으로 자기를 소모하는 사랑으로 규정된다.¹¹⁾ 이러한 사랑 안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에로스는 채우는 사랑이며 아가페는 내어주는 사랑이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고난의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과 함께 고난받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랑을 통해 상처와 고통이 전달되며 타자를 통해 변화되는 경험이 일어난다.¹²⁾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창조주의 사역은 이웃사랑뿐 아니라 이방인, 원수 사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수행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수직적 상호관계를 넘어 창조질서의 충만한 관계를 통하여 성취된다. 따라서 소위 사랑에 관한 이중 계명은 서로 다른 두 기본 관계의 결합이 아니라, 확고하게 연결된 하나의 계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움의 사랑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비움의 사랑 자체와 새 생명의 능력을 조건 없이 공유하도록 내어주시며, 자주 우리를 하나님과 풍성한

10) 위의 책, 233.

11) 위의 책, 235.

12) 위의 책, 290.

계시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비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을 드러냈고, 성령의 사역으로 피조물에 주어졌으며, 인간을 창조적 사랑으로 이끌어 그들을 하나님의 현존을 담지한 자들이 되게 하고, 새 창조물로서 성육신을 담지하게 한다.¹³⁾

비움의 사랑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계약신학적 기초를 가지며, 사랑받는 자의 깊이와 신비와 자유를 존중한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깊이와 신비와 자유가 살아 있게 하고 그 상태로 유지시킨다. 비움의 사랑은 새 창조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타자와의 관계성을 가능케 하며, 새로운 계약적 관계성을 추구한다. 아울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창조의 생명력을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에 사용했던 세상을 조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안으로 인도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새로운 창조질서의 구성원으로 회복된다.

IV. 창조의 현재적 의미

벨커의 창조이해는 시공간 개념에 제한된 전통적인 창조론을 비판하면서 전개된다. 그는 먼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창작 내지는 원인제공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비판한다. 피조세계는 창조주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출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의지와 결단에 기초한다¹⁴⁾. 창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기에 아날로기어나 표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 ‘무로부터의 창조’(creato ex nihilo)에서 무(nihil)는 상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의 반대개념

13) 위의 책, 238.

14)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7), 94.

인 혼돈을 의미하며, ‘무로부터’라는 서술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은 과거의 시간 속에 함몰된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이다. 벨커는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이 창조질서 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를 단순히 자연과 동일시하는 입장에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는 창조본문은 추상화된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 결과 왜곡된 창조이해가 형성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창조의 영역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확장시킨다¹⁵⁾.

창조기사의 기록목적과 내용은 피조물의 생성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현존과 활동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창세기의 관심은 피조물의 형성과정이나 세상의 시작과 기원보다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방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창조주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반대로 현실이 창조주로부터만 해석된다. 창조기사의 기록자는 독자에게 세상과 인간의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을 그 경험 안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본문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내용이 창조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창조순간의 목격담이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신학적으로 서술한 것이다.¹⁶⁾ 창조의 전개과정이 명백하게 진화론적인 발생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창조기사가 과학적 사고를 배제한 신학적 기술이 아님을 증거한다. 만일 우리가 창조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주의 창조사역에 관심을 가진다면 창조이해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양된다. 창조의 주인공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창조의 영역

15) Welker, 『창조와 현실』, 23.

16) Simon Browne, *The Close of the Defense of the Religion of Nature and the Christian Revelation* (London: General Books 2010), 49.

은 시간과 공간, 곧 자연세계와 창조질서를 넘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¹⁷⁾

창조주는 과거의 창조사건에 머물러 그 이후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창조질서를 주관하고 있기에,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creatio continua)으로 확장된다. 창조기사의 핵심은 피조물의 생성과정이라기보다는 창조주의 창조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고대근동의 다른 창조설화들과 구별되어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통한 창조가 아닌 ‘무로부터의 창조’, ‘말씀으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주어진 물질과 재료에 제한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말씀으로의 창조’는 공간에 제한된 행위를 넘어서는 말씀의 영원한 인격성을 드러낸다¹⁸⁾.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와 말씀은 하나이다. 피테가 파우스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본문을 “행위가 있었다”고 해석한 것도 그러한 의미를 함축한다¹⁹⁾.

창조에 관한 전통적 교리는 모든 존재가 영원하며 초월적인 실체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창조는 시작이며 원인제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과 세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승되었다. 벨커는 창조의 본질적 의미가 기원이나 발생이라기보다는 피조물의 현존에 대하여 섭리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증언이라고 주장한다.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는 창조사건의 목적을 인간과 비의 공동 활동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창조주와

17) Michael Welker, *Zum Bild Gottes: Eine Anthropologie des Geiste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43.

18) Stephan Sigg, *Gottes Schöpfung in unserer Hand: Materialien zu Schöpfungslehre und -verantwortung für den Religionsunterricht* (Berlin: Auer Verlag, 2021), 67.

19) Thorleif Boman,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허혁역,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왜관: 분도출판사, 2013), 23.

인간의 역할이 함께 연결되도록 창조가 진행되는 것으로 묘사한다.²⁰⁾

창조는 하나님과 세계의 대칭적 위치를 전제하는 대립관계에 기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세상을 존재하게 함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다. 창조주는 창조를 통하여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 밖에 있다²¹⁾. 따라서 창조주의 사역은 피조물의 생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관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섭리하는 것을 포괄한다. 다양하게 창조된 영역들은 일차적으로 인간과 식물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유대교 전승 속에서 창조는 다양하게 창조된 영역들의 상호의존 관계로 나타난다. 창세기의 두 창조기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창조질서가 상호의존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땅과 하늘로 창조했다는 진술은 인간존재가 감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일한 지상영역을 넘어서 관계성이 확장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창조는 인간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드러낸다. 창조가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자연과 문화가 상호의존적으로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²²⁾.

창조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의 영역의 상호의존관계이다. 하늘의 영역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영역이다. 창세기 1장 14절의 내용처럼 빛들은 징표로서 축제의 시간과 날짜와 연수를 규정하는 것이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창조전승의 여러 본문들 속에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문화적 표상들이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다. 창조는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영향받지 않는

20) Welker, 『창조와 현실』, 239.

21)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27.

22) Welker, 『창조와 현실』, 38.

23) 위의 책, 41.

영역들 사이에 있는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다²⁴⁾. 인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들은 하늘이라는 표현 안에 종합된다. 한편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땅으로 표현되며, 자연적, 문화적 상호의존성을 나타낸다.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것과 창조가 안식일에 집중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위임받은 것은 자연과 문화의 상호의존성을 암시하고 있다.

창조는 단순히 자연, 역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는 자연이나 역사,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와 자연현상으로서의 현실은 연결되면서도 구별된다. 그것은 인간의 신인식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접촉점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결코 자명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언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소위 자연신학에서 인간의 정신은 타고난 선천적 능력을 통하여 신성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²⁵⁾.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제한될 수 없다.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추상적 피안성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인식가능성을 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서의 전승들은 하나님과 하늘의 융합 보다는 하늘을 신격화 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피조질서 안에서 활동한다. 성서에서 하늘은 단순히 지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창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지하는 하늘은 자연적 영역이든지, 문화적 영역이거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24) 위의 책, 42.

25) 위의 책, 65.

되어 있지만 창조기사의 하늘은 그러한 감각적 영역을 초월한다. 하지만 하늘은 땅과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다. 창조기사의 형식적 내용은 하늘이 감각세계인 땅과 연관되어, 땅위의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감각능력을 전제하여 창조된 것으로 서술한다.²⁶⁾

V. 창조의 관계적 의미

벨커는 창조를 시간과 공간의 기원으로서의 아니라 창조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창조주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해한다. 창조기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만물의 존재 원인을 제공하거나 생산방식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피조물의 현존에 대한 창조주의 반응과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는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는 내용과 피조물에 대해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타나며, 창세기 2장 5절 이하에는 초목의 성장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경작하는 인간의 공동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홀로 있는 아담의 상황에 반응하여 하와를 창조한다.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응답하는 창조주의 행동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²⁷⁾. 창조주는 관찰하며, 이름 붙이고, 인간의 상황과 태도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창조하는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넘어 반응하는 하나님이며, 피조물에 관여하는 하나님이며, 창조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창조하는 하나님은 단지 일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반응하는 창조자이며 피조물에 관여하는 하나님이다. 창조하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독립성, 변화, 그리고 개선과 결핍에도 관여한다. 하나님의 활동성과 그의 명령은

26) 위의 책, 47.

27) 위의 책, 42.

무시간성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현재성을 의미한다.²⁸⁾ 벨커는 창조를 시간의 시점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시작으로 이해한다. 말씀으로 창조질서를 완성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말씀한다. 창조의 말씀은 피조물의 존재뿐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듣고 응답함을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성립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현재에도 지속됨으로써 창조의 현재성이 성취된다. 창조질서는 태초의 순결한 상태에서 분리된 자연질서의 전개과정이 아니라 창조주의 활동성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타락한 세상 안에서 창조는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창조주의 활동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창조활동은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피조물들의 고유한 활동과 결합되어 있다. 창조질서는 존재의 사닥다리처럼 창조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활동으로 유지된다. 하나님은 다양한 피조영역들을 생산적인 상호의존의 연관관계 안으로 창조한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두 창조기사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창조질서가 상호의존 관계의 공동체임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창조영역은 사람과 식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는 진술은 그가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나타내고, 인간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실체인 땅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²⁹⁾.

창조질서로서 하늘은 땅과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빛, 열, 물,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들을 분출시켜서 땅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은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규정하는

28) Myron Adams, *The Continuous Creation; An Application of the Evolutionary Philosophy to the Christian Religion* (London: General Books, 2010), 31.

29) Welker, 『창조와 현실』, 43.

능력이 표출되는 곳이다³⁰⁾. 창조질서 안에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역, 땅은 보이는 영역을 대표하며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책임을 맡은 인간에게 새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규정하며 창조질서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와 함께 창세기의 다른 본문들 안에는 하늘로부터 유래하는 자연적이며 문화적인 표상들이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창조는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들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인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적 영역들은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종합된다. 한편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 땅은 자연적인 상호의존 관계뿐 아니라 문화적 상호의존관계로 파악된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도구를 통한 문화적 진화를 의미하며,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은 인간의 문화적 삶에 있어서 노동과 휴식의 상호작용을 암시한다. 피조물을 명명하는 주권 위임 안에는 자연질서를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문화적 책임이 전제되어 있다³¹⁾.

VI. 창조와 자연계시

벨커는 창조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비판한다. 자연신학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신성을 감지할 수 있는 요소가 주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 기초해 있는데, 그것은 계시의 필요성에 배치되는 것이다³²⁾. 만일 현실 자체가 창조라면 현실로부터 창조와 신인식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자연신학은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신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세계에 대한 감각적

30) 위의 책, 41.

31) 김희권, “기독교 교육의 긴급한 의제로서의 창조질서의 보전,” 『신학과 실천』 63(2019), 554.

32) Welker, 『창조와 현실』, 69.

인식과 동일할 수 없다. 신성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전승된 경건성과 신학의 형식으로 주어질 수 없다. 오히려 신성을 자연적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이 경건과 신학을 파괴한다³³⁾. 하나님은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누구나 자신의 상상이나 환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벨커는 시편 19편 2절과 열왕기상 8장 27절의 내용을 자연신학의 기초 본문으로 이해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창공이 하나님의 솟씨를 선포하고”, “하늘 자체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할 뿐 아니라, 자연 안에 스스로를 계시한다. 비록 우주 속에는 빛나는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은 인간을 확실한 신인식으로 안내할 수 없다³⁴⁾. 비록 인간이 종교적 감정과 자연을 통한 신성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연을 통하여 순수하고 명확한 신 인식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자연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자연적 신인식을 넘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도전과 소명, 그리고 사로잡힘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다³⁵⁾.

벨커에 따르면 신앙은 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의 대전제는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³⁶⁾. 계시는 숨겨진 것의 나타남, 알려지지 않은 것의 선포이다. 그 안에는 만남과 대면의 순간, 놀라움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은 숨겨진 것의 드러남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의 선포를 필연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계시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타자성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

33) 위의 책, 73.

34) 위의 책, 80.

35) 위의 책, 81.

36) 위의 책, 65.

시는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포함하며,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을 경험의 세계 안으로 인도한다. 그 경험 영역은 계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통찰할 수 없는 곳이다. 계시는 인간을 자연신학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적 경험영역으로 이끌어간다³⁷⁾. 창조이해는 인간 안에 내재하는 자연신학적 모호성을 붕괴시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식 가능한 땅의 세계를 초월함을 나타낸다.³⁸⁾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성서의 전승들은 하늘을 신격화하는 해석을 배제한다. 성서에서 하늘은 지구의 반쪽을 가리키는 창공이 아니다. 창조기사에 따르면 하늘은 땅에 상응하는 영역이며, 땅위의 피조물과 인간의 감각능력을 향하여 창조되었다. 태초에 빛과 어둠의 분리는 감지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분을 의미한다³⁹⁾.

VII. 창조주의 주권위임과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벨커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중심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하여 공생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의 ‘지배하라’는 창조명령 속에는 억압의 의미가 배제되고, ‘동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삶의 공간을 보장해 주라는 고대 근동의 어법이 담겨 있다⁴⁰⁾. 29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채식규정은 다른 생명을 헤쳐서 먹거리로 삼지 말라는 살육금지의 의미가

37) 위의 책, 83.

38) John Shebbeare, *The Revelation of God in Nature* (Montana: Kessinger Publishing, 2010), 91.

39) Welker, 『창조와 현실』, 99.

40) 위의 책, 164.

담겨 있다. 인간과 동물은 하나의 공통된 삶의 영역과 음식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창조질서에서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주권위임은 지배권이 아니라 이러한 공생의 질서 안에서 권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청지기적 사명이다. 주권위임은 한편에서는 인간이 동물과의 연대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동물과 대립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⁴¹⁾. 그 안에는 고대근동의 왕권사상이 내포되어 있으며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인식이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지배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창조질서 보존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다.

벨커는 창조기사가 전달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서 창조질서에 대해 인간은 공생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창조의 명령은 피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그 질서를 책임 있게 보전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이다⁴²⁾. 그 안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이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연대적인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권한은 고대 근동의 왕권 개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책임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⁴³⁾. 땅위에서 인류가 번성하는 것은 동물과의 연대성을 보전하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우월성보다는 창조주의 주권위임과 창조질서

41) 위의 책, 162

42) 차명호, “창조에 대한 예배신학적 고찰과 적용,” 『신학과 실천』 18(2009), 78.

43) 김은수, “하나님의 형상과 사회복지,” 『신학과 실천』 6(2003), 179.

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나타낸다. 벨커는 그 근거로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과정과 28절에 나타나는 땅을 지배하라는 창조명령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제시한다⁴⁴⁾. 하나님의 형상은 개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관계성을 드러내는 형상이다. 2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의 복수적 의미는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였다. “우리가(복수) 사람을 우리의 형상(단수)대로 만들자”라는 표현은 있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단수) 사람을 남자와 여자(복수)로 만드셨다”는 내용과 연관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형상(단수)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복수)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단수)으로서 남자와 여자(복수)의 차별은 사라진다⁴⁵⁾. 인간들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에 상응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벨커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가 인간중심주의를 나타낸다는 해석을 반박하며, 오히려 창조질서에 대한 주권위임으로 해석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를 남성중심주의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인간을 형성한다는 관계적 동질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창조공동체는 안식공동체이다. 창조주의 안식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준수는 창조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의 날이 아니라 고통과 갈등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다. 그 날은 노동에 지친 인간을 회복시키는 날이며, 안식년 규정에 나타나는 것처럼 농경지를 휴식시킴을 통하여 인간에게 혹사당한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는 생태학적 의미

44) Welker, 『창조와 현실』, 142.

45) 위의 책, 153

를 담고 있다. 창조기사의 안식개념은 창조의 완성을 넘어서 창조질서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핵심계명으로서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왔다. 안식년 규정에 나타나는 농경지의 휴식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회복이며, 부채 탕감과, 노예해방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 모든 계명의 근원으로서 안식규정은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환경윤리를 위한 기독교적 실천원리이다.

창세기 9장의 노아이야기는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주권위임을 상실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과 동물들이 반목하는 관계로 왜곡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 결과 인간과 그의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이 악으로만 제어되는 타락과 심판사이의 과도기적 보존질서로 전환되었다. 벨커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권위임과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시는 창조주의 활동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VIII. 나가는 말

벨커의 케노시스 창조론은 인간중심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생명 중심적인 생태학적 창조신학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인간 안에 주어진 존재론적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이며 인간과 창조질서의 연대성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창조주의 주권을 위임받아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는 창조기사에 나타나는 전통적이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재화시켜서 인간의 윤리적 결단과 행동의 단초로 삼았다.

케노시스로서 창조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창조주의 자유이며 또한 자기제한이다. 벨커는 계약 신학과 구속신학에 나

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대성을 창조의 케노시스에서 발견한다. 창조의 사랑은 비움의 사랑이며 계약적 사랑과 구속적 사랑의 근원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근원적 힘이다. 비움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와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참여하게 한다.

비움은 자기정화 작용이 아니라 타자를 채우는 헌신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피조세계를 위한 공간을 창조한 것처럼 아담의 갈빗대를 비워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향한 비움의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다. 벨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진 신적 권위가 아니라 피조물과의 공생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권위임으로 해석한 것은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교회 현실을 향한 중요한 윤리적 방향제시라고 볼 수 있다.

사랑만이 자신을 비워 타자를 채운다. 비우는 사랑은 대상이 가진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대상 자체를 향하며, 대상을 사랑받을 존재로 만든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변화시켜서 타자를 채우고 변화시키는 창조의 원리이다. 이러한 비움과 채움의 상호작용은 개인적 영성에 갇혀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관계적, 공동체적 영성으로 회복하게 하며,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교회와 사회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영성의 길을 제시한다.

벨커의 창조신학과 창조윤리가 기독교 신학에 제시하는 중요성은 창조를 단지 시간적 개념으로 추상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창조주의 현존 안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창조주는 자연과 역사의 기원으로서 과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창조질서 안에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며 창조사역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창조이해를 통하여 창

조의 영역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하는 현실적 사건으로 무한하게 확장된다. 벨커가 지향하는 창조의 현재적 의미는 창조질서로서의 현실과 창조주의 지속적인 창조사역을 위한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창조론을 위한 중요한 방향제시가 될 수 있다.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사명일 뿐 아니라 동시대적 과제이다. 창조의 현재적 의미와 창조주의 주권위임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직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교회와 신학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다.

참고문헌

- 김균진, 『창조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김은수, “하나님의 형상과 사회복지,” 『신학과 실천』 6(2003), 171-191.
- 김희권, “기독교 교육의 긴급한 의제로서의 창조질서의 보전,” 『신학과 실천』 63(2019), 541-575.
- 신옥수, 『몰트만 신학 새롭게 읽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차명호, “창조에 대한 예배신학적 고찰과 적용,” 『신학과 실천』 18(2009), 67-101.
- 최광선, “생태영성 탐구-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디비나는 가능한가?,” 『신학과 실천』 138(2014), 463-487.
- Boman, Thorleif,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허혁역,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왜관: 분도출판사, 2013.
- Bonhoeffer, Dietrich, *Schöpfung und Fall*, 김순현역, 『창조와 타락: 창세기 1-3장의 신학적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Goldsworthy, Graeme, *The son of God and the new creation*, 강대훈역, 『하나님의 아들과 새 창조』,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 Kort, Michael, *Die Kunst der Bescheidenheit*, 이승은역, 『비움』, 서울: 21세기북스, 2007.
- Welker, Michael, *In God's Image*, 김희권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 인간학』, 서울: 라이프북, 2019.
- Michael Welker,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낭만적 사랑, 언약적 사랑, 비움의 사랑”, 박동식역, John Polkinghorne ed.,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케노시스 창조이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Welker, Michael, *Schöpfung und Wirklichkeit*, 김재진역, 『창조와 현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 Welker, Michael,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ends of God : science and theology on eschatology*, 신준호역, 『종말론에 관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Adams, Myron, *The Continuous Creation; An Application of the Evolutionary Philosophy to the Christian Religion*, London: General Books, 2010.
- Brown, David, *Divine Humanity: Kenosis and the Construction of a Christian Theology*,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1.
- Browne, Simon, *The Close of the Defense of the Religion of Nature and the Christian Revelation*, London: General Books 2010.
- Dubilet, Alex, *The Self-Emptying Subject: Kenosis and Immanenc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8.
- Keuss, Jeffrey, *Freedom of the Self: Kenosis, Cultural Identity, and Mission at the Crossroads*, Oregon: Pickwick Publication, 2010.
- Kreutzer, Ansgar, *Kenopraxis: Eine handlungstheoretische Erschliessung der Kenosis-Christologie*, Freiburg: Herder Verlag, 2011.
- Lagger, Christian, *Dienst: Kenosis in Schöpfung und Kreuz bei Erich Przywara*, München, Tyrolia Verlagsanstalt, 2007.
- Langdell, Tim, *Kenosis: Christian Self-Emptying Meditation*, London: Oxbridge Publishing, 2020.
- Lefsrud, Sigurd, *Kenosis in Theosis : An Exploration of Balthasar's Theology of Deification*,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9.
- Lounibos, John, *Self-Emptying of Christ and the Christian*,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2011.
- Moltmann, Jürgen,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7.
- Shebbeare, John, *The Revelation of God in Nature*, Montana: Kessinger Publishing, 2010.
- Sigg, Stephan, *Gottes Schöpfung in unserer Hand: Materialien zu Schöpfungslehre und -verantwortung für den Religionsunterricht*, Berlin: Auer Verlag, 2021.
- Walker, William, *The Incarnation and Kenosis*, New York: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5.
- Wells, Adam, *The Manifest and the Revealed : A Phenomenology of Kenosi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9.
- Welker, Michael, *The Spirit in Creation and New Creation: Science and*

Theology in Western and Orthodox Realm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2012.

Welker, Michael, *The Theology and Science Dialogue: What Can Theology Contribute*, Tüb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Welker, Michael, *Zum Bild Gottes: Eine Anthropologie des Geiste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Williams, David, *Kenosis of God: The Self-Limitation of God - Father, Son, and Holy Spirit*, Indiana: iUniverse, 2009.

논문투고일: 2023년 02월 13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4일

• 국 문 초 록 •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은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이다. 창조주의 사역은 피조물의 발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괄한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로만 제한될 수 없다. 하나님은 다양한 피조 영역들을 생산적인 상호의존의 관계 안으로 창조한다. 창조영역은 사람과 식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의미한다.

창조질서로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역, 땅은 보이는 영역을 대표하며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책임을 맡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창조 안에서 중요한 핵심은 자연계시가 아니라 자연적 신인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하여 공생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연대적인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위임받았다.

주제어: 창조, 현재, 공동체, 피조물
